

석사학위논문

종교개혁과정에 나타난 루터의 교육사상

지도교수 박찬문

11060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현익부

2001년 8월

종교개혁과정에 나타난 루터의 교육사상

지도교수 박 찬 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제출자 현 익 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익부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종교개혁과정에 나타난 루터의 교육사상

현 익 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지도교수 박 찬 문

역사연구의 의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비판과 반성을 거쳐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종교개혁은 서양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그 변화와 혼돈의 시기에서 앞장서 활약한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개혁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사상을 모아 분석하여 오늘의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그 당시로서 매우 진보적인 교육사상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하였지만, 그의 노력과 교육사상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아쉽게 여기면서 문제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첫째로, 루터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그에게 영향을 준 교육과 시대상황을 조사하였으며, 그의 종교개혁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장기의 모습과 행동영역은 한 사람의 사상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며, 종교개혁은 교육개혁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루터의 교육사상의 기반이 되는 그의 신학사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시대의 교육현황을 언급해 보았다. 루터는 구속되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의 신학사상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으며, 그의 교육사상을 정립하는데 가장 큰 밑바탕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일반적인 교육현황도 이 연구의 전체적인 구도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루터의 교육사상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셋째로, 루터의 교육사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주장, 그리고 현대 교육에 미친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관찰하였다. 그의 신학사상이 로마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이 신(神)과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의 교육사상은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교육, 의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을 여기에서 다루었다. 사제가 되려는 사람만이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던 시대에, 일반 대중 모두가 국가의 비용으로 종교교육과 더불어 일상에 필요한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그의 공교육 개념은 뚜렷한 그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제도, 수재교육, 도서관의 설립 등에 대한 주장, 그리고 교육자를 성직자와 대등한 위치로 중요시 여겼던 교육에 대한 그의 자세 등 많은 요소를 담아 보았다.

교육에 대한 그의 식견은 확실히 시대를 앞서 나갔다. 이러한 그의 교육사상은 그가 체계적으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현대교육의 기초가 되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루터는 분명히 종교개혁가이다.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종교개혁이다. 그의 교육사상은 종교개혁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그의 교육사에 끼친 공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루터의 교육사상을 살펴보아 요즈음 혼란스러운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루터가 교육사에 끼친 영향을 재평가해보는 것이 전체의 운곽이라 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루터의 생애와 종교개혁	6
1. 시대적 배경	6
1) 정치적 배경	6
2) 경제적 배경	7
2. 출생과 유년기	8
3. 성장기의 학습과정	9
4. 사상적 영향	11
1) 스콜라주의(Scholasticism)	11
2) 어거스틴학파(Augustinism)	12
3) 유명론(Nominalism)	13
4) 신비주의(Mysticism)	14
5) 기독교 인문주의(Christian Humanism)	15
5. 종교개혁의 전개과정	17
III. 루터의 교육사상의 기저(基底)	24
1. 신학사상	24
1) 성서의 절대 우위성	24
2) 은총에 의한 구원관	25
3) 만인사제직(萬人司祭職)	27
2. 중세기 이후 종교개혁기의 교육기관	28
1) 문답학교(Catechumental School)	28
2) 고급문답학교(Catechetical School)	29

3) 본산학교(Cathedral School)	29
4) 수도원학교(Monastic School)	29
5) 기사교육(Knightly Education)	31
6) 시민교육기관과 도제(徒弟, Apprentice)교육제도	32
7)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Common Life)	33
8) 대학교육	34
IV. 루터의 교육사상	37
1. 교육목적	37
2. 교육내용	39
1) 성서교육	39
2) 언어교육	40
3) 음악교육	41
4) 역사교육	42
5) 직업교육	43
3. 교육기관	44
1) 가정교육	44
2) 학교교육	47
3) 교회교육	52
4. 교수법	53
5. 정책과 지원	56
6. 현대 교육에 미친 영향	58
V.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5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열린교육에 대한 열기가 한바탕 지나가고 지금 논란이 많은 7차 교육과정
정이 시작되었다. 몇 년 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에 있어서 절대성을 지닌 그 기본 개념은 변할 수 없겠지만, 시대가 바
뀌면 내용과 방법이 그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변
화와 혼돈의 시대일수록 그 기준은 분명해야 하리라 본다.

인류의 역사는 깊이 사색하여 힘있게 움직이며 행동하는 인간들의 삶으
로 지속되어 왔다. 그 위대한 인간들 속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있
었다. 그는 중세의 가면을 벗고 인간의 정체를 재발견하는 변화의 시기에 모
두가 평등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神)을 인간에게 선물하였으며, 제도나 권
위보다는 성서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의 종교개혁은 매우 광범위하게 깊은 각성과 개혁을 야기함으로써 서
양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교회의 조직과 교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 온 힘찬 정신운동이었다.

그러한 종교개혁과정에서 그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었다. 그의
교육사상과 교육제도개선 노력이 서방 국가들의 교육계에 끼친 영향과 공헌은

적지 않다. 사제(司祭) 육성만을 위하여 로마교회가 주관하던 교육이 전부였던 시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는 공교육(公教育) 체도를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내용상으로는 신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가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문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예배에 사용될 음악이 필요하였으며, 내세만큼 현세도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직업을 위한 교육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루터의 개혁운동은 시간적으로 보면 물론 400여 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지만 인류에게 미친 사상적인 업적을 살펴볼 때 불변하는 현재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생각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의 교육방법과 내용은 현대의 교육과정 구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성서번역자, 신학자 등으로 알려진 루터에 대하여 그의 교육관을 새삼스레 논하는데 다소 이의(異議)를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루터는 교육자로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를 교육개혁자라 칭하여도 무리가 없을 줄 안다.

사실 마틴 루터가 교육에 남긴 이러한 업적은 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어쩌면 루터는 그의 신학보다는 그의 교육적 식견이 중세주의를 훨씬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울리히(Robert Ulich)교수는 그의 저서 「교육사상사(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에서 말하고 있고, 리취(P. H. Leach)교수는 「학교와 사회(School and Society)」라는 월간잡지에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에 있어서와 같이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혁을 일으켰다. … 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루터의 이념은 대부분 교육계에 있는 현재 지

도자들의 의견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¹⁾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를 종교개혁자로만 보고 있으며, 교육개혁자로서의 이해가 부족한 듯 하다. 그것은 물론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 내용으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각 시대의 교육은 싫든 좋든 간에 현재의 우리 교육에 영향을 남기고 있다. 그 중에서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인간교육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제거하는 것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임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변화의 시기인 종교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루터의 교육사상을 살펴보고 교육개혁자로서의 그를 재인식하고, 또한 그의 교육사상이 현대교육에 끼친 공헌과 혼란스러운 우리 교육 현실의 타산지식을 찾아보는 것에 의의와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시작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먼저, 이 연구의 범위를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 및 그의 교육사상 부분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종교개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루터의 시작으로 칼빈(John Calvin)도 그 한 축을 이루었으나 여기서는 루터에 활동에 국한하였

1) 배한국(1993), 「루터와 종교개혁」, 컨콜디아사, p.37.

고, 종교개혁과정에서 신학사상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교육개혁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했다.

II장에서는 루터가 출생하여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 루터의 성장과 학습과정, 그에게 영향을 준 사상들에 대해 이해한 다음 그의 종교개혁 과정을 다루었고,

III장에서는 루터의 교육사상의 기저로 그의 신학사상과 그 당시의 교육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IV장에서는 루터의 교육사상을 다루어 그의 교육목적과 내용, 교육기관, 교수법, 교육정책, 그리고 현대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주제와 범위를 가지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을 통한 연구로 정했다. 그러나 루터는 교육철학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책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 개의 저서나 발언 가운데서 교육문제를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의 교육에 대한 발언과 견해는 그의 종교개혁 작품, 주역서, 토론집, 설교집, 교리문답서 등 여러 저작물과 담화 가운데 산재해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루터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 지원용 박사도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

첫째, 루터는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신학대전」이나, 켈빈의 「기독교강요」 처럼 그들의 사상을 개괄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대표적인 텍스트를 뽑을 수 없다는 것,

둘째, 루터의 전집은 방대한데 반하여 세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연구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²⁾

이 연구도 그런 자료 선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에 나와 있는 그에

2) 지원용(1991), 「루터의 사상」, 컨콜디아, p.68.

관한 저서나 번역물, 각 대학의 학위 논문 등을 참고하였는데, 특히 지원용 박사의 저서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II. 루터의 생애와 종교개혁

1.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중세 독일의 정치적 이상은 소위 신성로마제국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국가의 수립이었다. 이와 같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대 군주들이 이탈리아 경영에 몰두한 결과 봉건제후들에게 자기 세력 확장의 기회를 주어 독일은 지방 분권적 봉건국가 체제로 굳혀져 버렸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권은 유명 무실의 상태로 962년 오토 대제(912-973)가 즉위한 이후 프레드리히 2세(1215-1250)까지 체면만 유지해 오다가 프리드리히 2세의 아들인 콘라드 4세(1250-1254)가 죽자 왕통이 끊어져 대공위시대(大空位時代, Interregnum, 1254-1273)를 초래케 하였다. 또한 대제후들은 앞다투어 제국의 봉토와 관직을 세습하고 제 특권을 빼앗아 독립하여 300개 이상의 영방국가(領邦國家, Landesstaat)를 탄생시켜 황제권은 겨우 자가 영지와 약간의 제국도시에만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1273년 합스부르크가(家)가 왕위를 계승한 이후부터 독일은 몇 차례의 정치적인 기복을 겪으면서 근대적인 국가에의 길을 걸어 오다가 막시밀리언 1세(1493-1519)가 황제에 즉위하자 국세를 만회하고 오스트리아와 그 속국에서 세력을 견고히 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그의 손자 카알 5세(1519-1556)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되었으며 유럽의 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³⁾

3) 홍치모(1991),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pp.50-52.

2) 경제적 배경

중세 전반기부터 정립되어 온 장원경제가 새로 대두한 신흥 상업 자본주의에 의해 몰락하기 시작했다. 영주지배하에 있던 농민들은 영주로부터 약간의 토지를 물려받는 대가로 매주 2-3일은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무상으로 일해야만 했고 장원을 이탈하거나 마음대로 결혼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도시의 발생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이 점차 활기를 띠어 농민들의 생활도 현저하게 달라졌다. 영주에게 상납하던 지대(地代)도 현물 대신 화폐로 지불하였고, 영주의 허가없이 결혼도 가능해졌으며 영주에게 바치던 노동도 없어져 농민의 경제적 지위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봉건적 관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수입감소와 물가고를 이유로 영방(領邦)제후들은 영주에게 압박을 가했고 그 영향은 농민에게 돌아와 새로운 연공(年貢)과 부역(賦役)이 부과되었으며, 마을 공동으로 사용해 오던 산림의 채취를 비롯한 모든 권리도 박탈당했다. 설상가상으로 대주교들은 로마 교황청의 지령을 받아 재정확보를 위해 10분의 1세(稅)의 징수와 면죄부 판매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 무렵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선출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황제와 교회 사이에서 모직물상에 지나지 않던 푸거(Johannes Fugger)가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의 아들 야콥(Jacob Fugger)도 황제와 제후의 약점을 이용해 합스부르크가(家)로부터 광산을 양도받아 은과 동을 동방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부(富)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루터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광부의 아들로 성장했다.⁴⁾

4) 홍치모(1991), 상계서, pp.52-54.

2. 출생과 유년기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색소니(Saxony) 지방의 아이슬레벤(Eisleben)에서 한스(Hans)와 마가레터(Margareter) 사이에서 태어났다. 루터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순수한 농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농부의 삶을 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 한스(Hans Luther)는 20대 초반에 투링기아(Thuringia)에 있는 부친의 농장을 떠나⁵⁾ 광산에서 일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아이슬레벤으로 옮겼는데 그 때 아내가 임신중이었다. 아이슬레벤에서 루터가 태어나⁶⁾ 반년쯤 지났을 때 구리와 은의 채굴로 한참 번창하고 있는 만스펠트(Mansfeld)로 다시 옮겨갔다.⁷⁾

유년기의 루터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루터의 부모는 “최초리를 아끼면 자녀들을 못쓰게 만든다.” 라는 격언대로 엄격하게 교육하였다.⁸⁾ 그는 어머니의 무릎 밑에서 십계명, 주기도문, 신조, 간단한 찬송 등을 배웠는데⁹⁾ 이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가정교육이었다.

5) 이 때 독일 사회는 말자상속제(末子相續制)였다. 법에 의하면 순위 형들은 막내에게 부친의 농장을 양보하여, 동생의 소작인이 되거나, 다른 농가에 장가들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다. Erik H. Erikson(1958), 「청년 루터(Young Man Luther)」, 최연석 역(1997),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p.62.

6) 태어난 다음 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이 성 말틴 축일이어서 아버지 Hans는 그의 아들 이름을 마르틴(Martin)이라고 지었다. 지원용(1960), 「말틴 루터」, 기독교서회, p.20.

7) 최연석 역(1997), 전계서, P.62.

8) Preserved Smith(1873), 「The Life and Letters of Martin Luther」, p.3. ; 정정숙(1983),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총신대학출판부, p.13에서 재인용

9) Elsie Singmaster(1939), 「Martin Luther」, p.14. ; 정정숙(1983), 상계서, p.13에서 재인용

3. 성장기의 학습과정

루터는 1488년 라틴어 학교인 만스펠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삼학과목(三學科目, Trivium),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배웠다.¹⁰⁾ 이 학교는 교육방법이 엄하여 두려운 학교생활이었지만 여기에서 배운 어학실력은 훗날 성서번역과 학문적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성가를 배웠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Sanctus)’, ‘오, 천주의 어린양(Agnus Dei)’, 그리고 ‘고해의 기도(Confiteor)’를 암송하고 시편과 찬송을 부르는 연습을 했다.¹¹⁾ 이 때의 음악교육 또한 루터의 음악적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간이었으며 그가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후에 많은 찬송가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4세가 되기까지 8년 과정의 만스펠트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루터는 인구 3만 정도의 종교적 도시인 마그데부르크(Magdeburg)고등학교¹²⁾에 입학했다. 1년 동안의 짧은 기간(1497-1498)이었지만 여기에서 그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공동생활 형제단(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를 만나¹³⁾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에 대한 경건함을 배웠고, 비로소 성서를 읽게 되었다. 1498년 루터의 가정은 아이제나흐(Eisenach)로 이사하여 그 곳

10) Ibid, p.14. ; 정정숙(1983), 상계서, p.13에서 재인용

11) Roland H. Bainton(1990), 「Here I Stand」; 최태성(1997) “루터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26에서 재인용

12) 교회학교(Cathedral School) 라고도 적고 있고,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가르쳤다 함. 홍치모(1991), 전계서, p.57.

13) 후에 종교개혁사가들은 루터가 공동생활 형제단을 만났던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 배경이라고 얘기한다. 홍치모(1991), 전계서, pp. 297-313.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라틴어를 완전히 익혔고 웅변술과 언어의 시적 표현도 배울 수 있었다.

1501년 18세의 루터는 에르푸르트(Erfurt)대학 문리과에 입학하였다. 이 대학은 그 당시 독일에서 제일 좋다는 평을 받았던 대학이어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는데 인문주의적 정신에 충만하여 있었고 고전으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설되어 있었다. 에르푸르트에서 루터는 인문주의 학자들과 많은 접촉을 가졌고, 비엘(Gabriel Biel)의 제자이자 루터의 스승이었던 유명론자 우징겐(Batholomaeus Von Usingen)에게서 유명론을 접하게 되었다. 1502년 학사학위를 받았고 1505년 2월에 17명의 학생 가운데 2등이라는 성적으로 문학석사가 된다.¹⁴⁾

이제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법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학기가 시작되었으나 잠깐의 휴학을 얻어 방향을 하던 중 스토테른하임(Stotternheim) 마을 가까이에서 격심한 뇌우를 만나 결심을 하고 돌아와 1505년 7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간다.¹⁵⁾ 당시 에르푸르트에는 35개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중

14) 나중에 그는 “나는 아직도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기쁨치고는 그것(문학석사를 받던 때의 기쁨)에 따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지도교수가 추천을 써 주어 강의를 할 수 있고, 교수단에 끼어 토론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학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였다. 최연석 역(1997), 전계서, p.112.

15) 루터 친구의 죽음, 루터 자신이 동맥을 다쳐 그 출혈로 죽을 뻔했던 일, 흑사병으로 형제 중 두 동생이 죽었던 일, 그리고 흔히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사건인 스토테른하임에서 뇌성벽력을 만나 충격 받은 일들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동안 형제단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경건한 생활을 경험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내면적 요인 즉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 적합하다. 원용서(1998), “루터(Luther)의 인간 이해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p.6.

에서도 프란시스코나 도미니크 수도원과 더불어 이 수도원도 학문연구에 유명하였고 엄격한 수도 생활로 알려져 있었다. 고되고 엄격한 수도 끝에 1507년 4월 사제로 임명받아 5월 2일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초의 미사를 집전하였다.

1508년 슈타우피츠(Johannes Staupitz)¹⁶⁾의 초청으로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원의 설교자와 대학의 강사로 간다. 그 때 그는 도덕과 철학을 가르쳤지만 교수들 사이에서 냉대를 받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잠시 비텐베르크 대학을 떠나있는 동안 1510년에 로마여행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당시 로마의 종교적 상황에 많은 실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1512년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그는 교회의 설교자와 정식 대학 교수를 겸임하게 된다. 여기에서 1513년 시편 주석을 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사상적 영향

1) 스콜라주의(Scholasticism)

루터 이전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문적 경향은 스콜라주의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스콜라주의는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학문으로 신학과 철학에서,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난다. 스콜라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기독교 계시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적용시켜 신앙과 이성, 철학과 계시의 화해”를 시도했던¹⁷⁾ 것이다. 이 스콜라주의는

16) 루터와 로마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총감독이었을 당시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에 교수로 초청한 사람. 옥감(William of Ockham), 비엘(Gabriel Biel)로 이어지는 유명론을 루터의 스승이던 우징겐(Bartholomaeus Von Usingen)과 함께 발전시켜 나갔다. 원용서(1998), 상계서, pp.7-14.

크게 3기로 나누는데 1기는 8~12세기로서 발생기에 해당되며, 2기는 13세기 전성기이며, 3기는 14~15 또는 16세기에 이르는 쇠퇴기에 해당된다. 종교개혁은 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어났다. 초기에는 대개 어거스틴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의 대립으로 보기도 하고 도미니크파와 프란시스파간의 신학적 논쟁으로 보기도 한다. 도미니크파는 아퀴나스로 연결되어 신학대전을 낳고, 프란시스파는 스코투스(Duns Scotus)로 연결되어 전성기를 맞는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조하여 이성으로 의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반면 스코투스는 의지가 이성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이성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본다. 루터도 비텐베르크에서 스콜라주의를 접하지만 배격하게 된다.¹⁸⁾



2) 어거스틴학파(Augustinism)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 Aurelius Augustinus)은 북아프리카 태생의 교부로서 신이 어떻게 하여 악을 만드는데 의혹을 가져 마니(Mani)교에 귀의하였다가 마니교의 우주론에 회의를 느껴 387년 세례를 받고 보좌주교직을 맡았다. 신플라톤주의적 기독교화에 힘썼으며 모든 국가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전혀 무력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된다는 생각을 한층 발전시켰다.¹⁹⁾ 루터는 공동생활 형제단에서부터 어거스틴을 접하게 되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은총신학, 계시신학은 루터의 신학적 기초가

17) Douglas((1974),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Zondervan, pp.885-886. ; 원용서(1998), 상계서, p.8에서 재인용

18) 원용서(1998), 상계서, pp.8-10.

19) 서문당(1975), 「컬러판세계백과대사전(12권)」, p.598.

되었다. 불가항력적 은총, 예정적 은총의 이해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義)와 인간의 의(義)는 상호보충적이고, 인간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가 함께 이해되는 양면성이 있지만, 루터에게는 오직 인간 외적, 신(神)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이해만 존재한다.²⁰⁾ 이 점은 후에 에라스무스와도 대립하게 된다.

3) 유명론(Nominalism)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 실재론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편에 대한 실재 문제를 두고 보편이 실재한다는 쪽이 실재론이고, 보편은 실재하지 않고 다만 명목상이며 존재하는 것은 개체라고 주장한 것이 유명론 혹은 명목론이다. 유명론이 제창된 시기는 전, 후 2기로 나뉜다. 전기는 11~12세기에 베렝가르(Berengar)와 로스켈리누스(Roscelinus)에 의해서, 그리고 후기²¹⁾는 토미즘(Thomism)과 스코티즘(Scotism)을 거부하며 옥캄(William of Ockham)에 의해 선도되었다. 옥캄은 파리대학 교수를 지냈고 교황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었다. 옥캄은 우선 지식을 얻는 방법을 추상보다는 직관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을 기초로 신을 개별적인 의지, 즉 신앙에서 파악하려 했다.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보다는 영감에 의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옥캄의 사망 후 유명론은 그의 제자인 비엘에 의해서 계승되고 확산되었으며, 에르푸르트 대학 시절 우징겐을 통해 루터에게 전해졌다. 이 당시 파

20) 김홍기(1996),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예루살렘, pp.50-51.

21) 후기 유명론은 스콜라철학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근대 영국 경험론에의 길을 열었다. 서문당(1975), 「컬러판세계백과대사전(제15권)」, p.55.

리의 옥감주의자들은 물리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과 학을 접할 수도 있었다. 초기에 루터는 옥감과 비엘의 사고에 공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루터는 유명론과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후에 루터는 유명론과 대립을 보이게 됐다. 루터와 유명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본질이 선하다는 유명론에 반해 루터는 신의 절대적인 권능 아래 인간의 본질은 부패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옥감의 지적 개인주의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조는 종교개혁에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신비주의(Mysticism)

이탈리아에서의 종교적 의식은 멸절(滅絶)되지는 않았지만 신이 예술작품으로 영광시되는 심미적이고 향락적이며 대중의 예배정도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북유럽에서는 더욱 신비적이며 진지하게 도덕적인 색채를 띠어갔다. 14세기에 독일은 신비주의에 휩싸여 엑카르트(Johannes Eckhart)와 아کم피스(Thomas à Kempis)같은 신비주의자를 배출했다.

신비주의의 본질은 개인의 영혼은 신과 직접 완전히 홀로 사귄 수 있다는 신앙이나 경험에 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성·언어·공적 예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심지어는 교회의 사제들이 집전하는 성사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교회에 대하여 거역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교회의 모범을 인정했다. 물론 더 본질적인 추종자들은 사회제도로써 교회가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 더 심원한 종교를 지향하였다. 사실상 모든 사회제도는 신비주의자에게는 개인의 영혼으로 인하여 초월되었다.²²⁾

22) Robert Roswell Palmer·Joel G. Colton(1978), 「서양근대사 I (A History of

루터는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아캠피스의 영향을 받았고, 저자가 분명치 않은 「테오로기아 겔마니카(Theologia Germanica)」라는 저서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타올러(Johannes Tauler)의 영향이 컸는데²³⁾, 제단이나 어떤 중재자가 아니고 신과 직접적인 결합을 갖고자 하는 개인을 뚜렷이 드러낸 점에 있어서 루터의 신학적 발전에 긍정적 공헌을 하였다.²⁴⁾ 그러나 루터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었다. 근본적인 차이는 신비주의자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면적 존재를 발견하고 체험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반면 루터는 원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이었다. 이 북유럽의 신비주의는 이탈리아 인문주의와 만나면서 기독교 인문주의를 탄생시켰다.

5) 기독교 인문주의(Christian Humanism)

기독교 인문주의는 루터와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다. 또한 종교개혁 전야에 중세를 붕괴시키고 대학 전반에 걸쳐 확산된 새로운 사상이었다. 그것은 독자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운동과 인문주의가 결합되면서 나타난 학문과 사상의 조류였다.

독일의 인문주의는 1470년경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산을 넘어 독일로 들어오면서 미적인 색채가 없어지고 대신에 명상적이고 경건한 종교적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 즉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희랍과 로마시대의 고전을 연구하고 해석한 경향이 있었다면 독일 인문주의자들은 유대교 및 기독교의

the Modern World)」, 강준창외 역(1988), 삼지원, p.89.

23) 타올러는 에크하르트보다 실재성을 갖추고 저서들 속에 복음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올러도 성경말씀보다는 인간의 내부에서 들리는 스리를 강조했다는 면에서 그도 역시 동일한 신비주의자였다. 원용서(1998), 전개서, p.14.

24) 배한국(1993), 전개서, pp.285-286.

경전을 연구, 해석한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속하여 기독교의 고전어학을 연구하던 자들로 로이힐린(Johannes Reuchlin), 아그리콜라(Rudolf Agricola), 간스포트(Wessel Gansfort), 그리고 체계화시킨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교회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기독교 고전과 성경의 연구를 통해 스콜라주의를 비판했다.

독일의 인문주의가 강한 기독교적 색채를 띠게 된 것은 에라스무스의 공(功)이었다. 로이힐린을 통해 히브리어 기본 문법이 나와 그것으로 구약성경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절대적인 것은 에라스무스였다.

에라스무스는 중세교회를 변혁시켜 새로운 기독교 세계를 이룩하고자 학문의 새로운 체계를 수립했다. 예수의 인격과 사상을 기준으로 인문주의와 신비적 경건주의를 잘 조화시켜 새로운 학문을 수립하려 했으며, 「희랍어 신약성경」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시도한 인문주의는 여러 면에서 루터와 달랐다. 그는 기독교를 인문주의를 펼치는 교양의 종교로 보았고, 속죄적 종교가 아니라 도덕의 종교로 생각했다. 결정적인 차이는 루터는 신의 은총을 강조하는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와 자연적 능력을 인정하고 강조했다.

루터와 학문적인 사상면에서 일치점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간스포트이다. 간스포트는 북유럽 문예부흥의 선구자이며 북유럽 문예부흥운동과 종교 개혁 운동을 내면적으로 결정지은 사람이라 볼 수 있다. 루터는 그의 저서를 읽고 그의 사상에 공감을 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 둘 다 그의 영향을 받았지만 걸어간 길은 서로 달랐다.

시기적으로 루터가 인문주의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에르푸르트대학 시절이다. 그러나 이때 루터는 도중에 수도원에 들어가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에르푸르트 대학에 퍼져 있던 인문주의를 많이 접촉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인문주의자들이 루터를 후원했다가 나중에는 결별을 하는데 이것은 개혁에 대한 노선과 견해가 달랐음을 말해준다.²⁵⁾

5. 종교개혁의 전개과정

종교개혁의 원인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는 교황청과 로마교회의 타락과 부패²⁶⁾, 다른 하나는 면죄부²⁷⁾ 판매이다.

25) 원용서(1998), 전개서, pp.15-19.

26) 중세말기에는 성직매매가 공공연하게 행해져 레오10세(재위 1513-1521)는 해마다 2천이나 되는 성직을 팔아서 50만 두카텐(1982년 우리 화폐 환산 1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nepotism(관직 임용에 연고자-조카-를 애호하여 등용하는 것)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이것은 조카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nepos(nephew)에서 나온 단어로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자기 조카를 성직이나 관직에 임명하던 역사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조카가 아니고 그들의 아들들이었다. 삼성출판사(1982). “아시아의 왕조·르네상스시대,” 「대세계의 역사 VI권」, p.320.

27) 원래 면죄부는 종교적 계명을 위반한데 대하여 교회가 가한 처벌의 완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이교도와 싸우는 자들에게 수여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정신적 운동에 대한 금전적 기부도 기독교 세계의 공동 선(善)을 위한 이러한 봉사에 포함되게 되었다. 지방 지배자들은 그들의 영토 내에서의 면죄부 판매를 지지하여 그 수입의 일부를 보수로 받음으로써 혜택을 보게 되었다. 현금으로 면죄부를 사들이는 일은 사람들에게 죄의식조차 느낄 수 없게 만들었다, 면죄부는 신에 의해서 징벌을 완화해 주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교회에 의한 처벌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뜻하였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그런 권한을 직접 주장하였다. 조지 L 모스(1953), 「종교개혁(The Reformation)」, 이민호 역(1986), 탐구당, pp.27-29.

로마 교회의 권위와 부패에 반기를 든 사람으로서 위클리프(John Wycliffe)나 후스(Johannes Huss)²⁸⁾가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도전한 사람은 루터가 처음이었다. 30세까지 그는 내면적이고 연구에 진지한 인물이었다. 그는 심판자이신 신의 전능에 대한 무서운 생각으로 떨었고, 자신의 왜소함에 좌절감을 느끼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²⁹⁾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평안에 대한 새로운 실현과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는 1513년부터 1515년까지 구약성서와 시편을 강의하면서 열심히 연구했다.

이때 독일에서는 테첼(Johann Tetzel)이라는 수도사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성당의 건축을 위한 비용조달을 위해 교황이 인정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³⁰⁾ 16세기초인 그 당시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28) 위클리프는 영국 출생으로 옥스퍼드대학의 교수로서, 성서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이상으로 하여 로마교회의 교황의 권력, 교의(敎義)나 제도, 부(富)의 소유에 대해 비판했다. 교회는 평등한 신자의 집합체로 보았으며,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였다. 교황으로부터 이단이라는 선고로 받았으나 왕실의 보호를 받아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헤미아의 후스 사건 이후 로마교회는 사망하여 땅에 묻힌 위클리프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그의 유해를 파내어 화형에 처하고 재는 스우프트강에 뿌렸다.

위클리프의 저술은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던 보헤미아인들에 의해 본국으로 옮겨져 프라하대학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 성장한 사람이 후스이다. 그는 웅변과 학식이 훌륭했지만 대부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후스의 로마교회에 대한 비판은 독일과 로마교회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그는 1415년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소환되어 이단으로 구분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그 후 체코인들은 신성로마제국황제와 로마교회를 상대로 20년 가까이 항쟁했다. 삼성출판사(1982), 전게서, pp.322-323.

29) 「신약성서」, “로마서”, 1:17.

30) 1514-1517년 독일의 면죄부 판매는 알버트(Albert)에 의해서 였다.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사교직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마인쯔의 대사교직에 임명받으면서 통

비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결속하는데 실패하였으므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로마 교황청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서구의 다른 국가보다 약체인 독일을 이용하기에는 안성마춤이었다.³¹⁾

루터는 1517년 이전에 이미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었다.³²⁾ 그러나 판매는 계속되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성(城)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논제”³³⁾를 붙였다. 이날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이 때만 해도 루터는 어떤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고 로마교회에

상적인 액수인 14,000두카트에다 10,000두카트를 특별부과금으로 더 지불하였는데 교황청이 특별부과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면죄부 판매를 제안하였다. 받은 알버트가 갖고 받은 성 베드로 성당 건축자금으로 교황청이 갖기로 했다. 알버트는 테첼에게 판매를 맡겼는데 성과는 저조하였다. 이민호 역(1986), 전게서, p.29. 다른 책에는 알버트를 알브레흐트라고도 적고 있음 배한국(1993), 전게서, p171

31) 홍치모(1991), 전게서, p.61.

32) 루터가 속해 있던 작센주의 영주 프리드리히 현공(賢公)(1463-1525)이 매년 만성절(11월 1일)에 속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1516년에 두 번이나 항의한 일이 있었다. Rolan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p.37. ; 홍치모(1991), 상게서, p.62에서 재인용

33) 이 논제는 라틴어로 쓰여졌으며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대의견이었다.

제20조 교황의 모든 죄에 대한 사면이라 함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모든 죄의 면제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교황에 의해서 부과된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21조 그러므로 교황이 발부한 면죄부로서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주장하는 면죄부 설교사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제22조 왜냐 하면 교황은 연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교황의 법규에 의하여 현세에서 치루었어야 할 죄를 면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Crane Brinton외(1960), 「세계문화사 中, (A History of Civilization)」, 민석홍 역(1982), 을유문화사, p.65.

제36조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면죄부를 갖지 않아도 모름지기 징벌과 심판을 모두 면제받아 마땅하다. 삼성출판사(1982), 전게서. p.330.

남아 있으려 했으며, 다만 대학 내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기 위하여 공개한 것에 불과하였다.³⁴⁾ 이 “95개조 논제” 는 즉각 독일어로 번역되어 2주만에 전 독일에 퍼져나갔다.

1519년 6월 27일부터 18일간 첫 토론이 있었다.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교수인 엑크(Johannes Eck)가 논전(論戰)을 걸어온 것이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인 칼시타트(Andreas Karlstadt),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과 함께 라이프찌히로 가서 토론을 벌였다. 교황지상권³⁵⁾을 논제로 삼았는데 엑크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며 엑크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불법의 아들 후스가 작센에 나타났다.” 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 소식이 즉각 전 독일에 퍼지자 루터의 지지자들이 그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1520년 6월 15일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60일 이내에 그의 모든 견해를 공식 취소하지 않으면 이단자로 판명하겠다는 내용의 “교서(Exurge Domine)” 를 선포하였다.³⁶⁾ 처음 의도와는 다르지만 로마 교회와 대립하게 되자 루터는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1520년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³⁷⁾, “교회의 바벨론 감금”³⁸⁾, 크리스찬의 자유”³⁹⁾의 세

34) 배한국(1993), 전계서, p.66.

35) 엑크는 “교황의 지상권은 예수께서 말기셨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은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였고, 루터는 “그런 증거가 없으며 초대교회에서도 로마의 권력이 지역 교회에 미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엑크는 그런 루터를 후스와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으며, 루터는 후스의 신조 가운데 분명히 기독교적이며 복음적인 대목을 수없이 보았다고 인정했다. 삼성출판사(1982), 전계서, pp.338-339.

36) 교서는 6월 15일에 발표됐지만 루터가 직접 받은 것은 10월 10일이며, 12월 10일 비텐베르크성 동문 가까이서 불태워 버린다. 지원용(1997),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컨콜디아사, p.3.

37) 기본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문제를 논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첫째 부분은 “로마의 세가지 담” 으로 분류하여 1천년 가까이 서방세계를

가지 논문을 각각 8월, 10월, 11월에 발표했다.

1521년 1월 교황 칙서를 통하여 루터에 대한 파문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4월에는 브롬스제국회의에 소환되었다.⁴⁰⁾ 루터는 여기에서 “나는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근거없는 권위를 믿을 수 없습니다. … 정정당한 논리로서 내가 의거하고 있는 성서에 입각하여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의 양심이 신의 말씀에 사로 잡혀 있는 이상, 나는 아무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이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아멘.”⁴¹⁾이라고 말했다. 결국 카알 5세는 루터를 직접 처단하지 못하고 제명(除名)을 선포하여 루터가 신성로마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교회를 신학적으로 논박하고 있다. 하나의 담은 영적 문제에 관하여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둘째 담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교황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셋째 담은 교회 의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교황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둘째 부분은 공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당면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 당시 독일에 있어서 반 로마파, 특히 인문주의자들과 기사들의 논조와 흡사한 점이 많았다. 지원용(1997), 상계서, pp.17-19.

38) 로마 교회에서 행해지던 7가지 성례 중에서 떡(성만찬)의 성례, 세례의 성례, 참회의 성례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원용(1997), 상계서, pp.168-169.

39) “신앙(혹은 자유)에 관한 문제-내적인 것”, “행동(혹은 봉사)에 관한 문제-외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논하면서 만인제사장직(萬人祭司長職)을 주장한다. 지원용(1997), 상계서, pp.294-339.

40) 1520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카알 5세가 즉위했는데 이 당시 황제는 세습제가 아니라 제후들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므로 황제는 제후들에게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관식에서 제후가 루터의 심리를 로마교회로부터 속권(俗權)으로 옮길 것을 결심하고 루터를 브롬스 제국회의에 출두시켜 유죄나 무죄냐를 심리해 달라고 황제에게 제안했다. 전쟁에 제후의 도움이 필요한 카알 5세는 이를 승낙했다. 이런 속권에 의한 이단 문제의 심리는 중세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큰 변혁이었다. 삼성출판사(1982), 전계서, p.342.

41) 민석홍 역(1982), 전계서, p.68.

제국의 보호밖에 있음을 밝혔을 뿐이고 그의 모든 저서가 금서목록에 기록된 정도였다. 루터가 브롬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센 선제후 프레드리히 3세가 몰래 그를 습격하는 체 가장하고는 바르트부르크성(城)에 숨겨 루터는 거기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신약성서를 번역한다.

1522년 3월에 비텐베르크로 돌아온다. 과격파를 대표하는 칼시타트가 반 로마교회주의에 철저한 나머지 교회에 들어가 성상을 파괴하고 폭동의 징후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자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수습한다. 다음은 훗텐(Ulrich Von Hutten)에 이끌린 제국기사의 반란이 일어났다. 제국기사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그들의 반란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제후들에 의해 간단히 진압되었다. 그리고 다음해에 루터의 찬송가 창작이 시작되었다.

1525년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1524년 6월에 서남 독일에서 시작된 농민전쟁은 1525년 전 독일의 3분의 2가 전쟁에 휩싸였다.⁴²⁾ 주도자는 뮌처(Thomas Müntzer)였다. 그는 1521~1522년 사이에는 루터의 지지자였지만 루터와 논쟁을 벌이면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는 계급 없는 사회를 외치면서 사회변혁을 역설하였다.⁴³⁾ 이 전쟁동안 루터가 제후의 편에 섰던 것 때문에 다소의 농민들에게 실망도 안겨주었다. 이 해 6월에 보라(Katharina Von Bora)⁴⁴⁾와 결혼했으며, 10월에 작센 선제후의 도움으로 작센에서 교회 개혁을 시

42) 농민전쟁에는 일부 영방(領邦)도시들과 제국도시가 농민편에 합세했기 때문에 농민군은 소총, 대포 따위의 화기가 있었고, 농민중에는 외국에 용병으로 갔다와 이미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대단한 위세였다. 그리고 그 당시 제후들은 황제의 요청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와 1세와 전쟁중이었으므로 처음에는 교섭으로 나가다가 5월부터 총반격을 시작하여 진압하였으며 농민군은 약 10만이 사망하였다. 삼성출판사(1982), 전게서, pp.345-348.

43) 루터는 누구나 자신의 직업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므로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 삼성출판사(1982), 상게서, p.346.

도하였고, 멜랑히톤에 의해 학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1526년 6월에서 8월까지의 제 1회 스파이어 제국회의에서 교회 문제에 관하여 제후 및 제국도시의 결정권을 인정하였다. 이때부터 루터파 교회는 영주, 제후의 지지를 얻어 그 기반을 견고히 닦게 되었다. 그러나 1529년 2월에서 4월까지의 제 2차 스파이어 제국회의에서 카알 5세가 1526년의 결정을 취소하고 브롬스의 제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자 루터파를 지지하던 제후들과 제국도시들은 반대하였는데 이때 ‘항의하는 사람(protestant)’이라는 용어가 신교도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쾰링클리와 만나서 신교 내부의 통일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였다.

1534년 루터의 성서 번역의 첫 총서 “성서”가 출간되었다. 신약성서의 완역은 독일 민족 교화에 기여했으며 독일어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⁴⁵⁾ 1535년 이후에도 성서번역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을 계속하였다.

그 후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아이슬레벤에서 사망하여 비텐베르크에 묻혔다.

44) 칼시타트의 선동 이후 수도사나 수녀가 수도원을 빠져 나와 결혼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성직자도 결혼해야 하고 수도원은 폐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루터는 수녀원을 나오고 싶다는 12명의 탈출을 도와 주고 마지막까지 미혼으로 있던 그녀와 결혼했다. 삼성출판사(1982), 상계서, pp.349-350.

45) 신약성서에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시적 감흥으로써가 아니라 국민생활에 대한 영감으로서 계획된 한 언어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재다능한 인간의 모든 면과 풍부한 지방어의 모든 자원들이 결합되어 있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적당하게 풍부한 독일 운문의 걸작은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명작이다.... 루터의 성경과 비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인쇄물>에 불과하다.”

독일 언어학의 창시자로 여겨지고 있는 그림(Jacob Grimm)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의 초자연적인 순수성 때문에, 그리고 깊은 영향력 때문에, 루터의 독일어는 새 독일 언어의 핵심이며 기본이라고 여겨져야만 한다.” 최연석 역(1997), 전계서, p.305.

III. 루터의 교육사상의 기저(基底)

1. 신학사상

1) 성서의 절대 우위성

종교개혁의 객관적인 원리이다. 루터에 의하면 성서만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⁶⁾ 그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 생활의 유일한 토대로 성서를 강조하여 전통이나 교황의 교서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 입장은 신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46) 루터는 1520년에 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논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모든 종류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관(靜觀)과 명상과 또한 영혼이 할 수 있는 모든 일까지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 단 한 가지만이 크리스찬의 생활과 의(義)와 자유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 곧 “요한복음 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마태복음 4: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행동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없음을 정확하고 확고부동한 사실로 우리는 생각한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면 영혼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생명, 진리, 빛, 평화, 의(義), 구원, 기쁨, 자유, 지혜, 능력, 은총, 영광 및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지원용(1997), 전계서, p.297.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⁴⁷⁾고 가르친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루터의 부단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리를 제정하며, 이성(理性)이나 교황 또는 교회 의회(議會)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람의 교훈이나 계명’에서 교회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국어로 성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는 1521년 신약성서를 그의 모국어를 번역한 것을 시작으로 1534년 구약성서까지 번역하였고 그 후에도 그 번역서를 개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성서를 번역한 적이 있었다.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였고, 독일어 번역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국어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것과 세계 천여 개 이상의 언어로 성서가 읽혀지고 있는 것은 루터의 성서중심의 신앙관과 번역의 힘이 크다.⁴⁸⁾



2) 은총에 의한 구원관

종교개혁의 주관적인 원리이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이 결코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루터의 강조점은 선행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선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47) 「신약성서」, “에베소서”, 2:20.

48) 배한국(1993), 전제서, pp.33-34.

49) 루터는 1520년에 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논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고 자유롭고 또한 선(善)이 가득 찬 평화로운 말씀이다. 그러므로 굳건한 신앙으로 이 말씀에 매달리는 영혼은 이

이것은 루터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몇 가지 성구(聖句)에 근거하고 있다. 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⁵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⁵¹⁾ 등의 구절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구원관에 의하면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주어진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신뢰하고 죄를 참회

말씀과 밀접하게 결합되고 완전히 이 말씀에 동화(同化)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충분히 잠겨지고 도취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병(病)을 낫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화인 가장 부드러운 영적 접촉이 그 말씀에 속한 모든 것을 영혼에 더하여 주지 않겠는가! 공적 없이 신앙만에 의하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참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되고 모든 축복으로 충만케 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이른다. 이것은 “요한복음 1:12”에서 “……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 이리하여 크리스찬은 신앙 가운데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며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아무 선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일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율법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만일 그가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는 율법에서도 해방을 받을 것이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딤후 1:19)라고 한 것은 참되다. 우리의 신앙, 크리스찬의 자유는 우리를 게으름이나 사악함 가운데서 살게 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義)와 구원을 위하여 율법이나 공적이 필요치 않도록 만든다. 이것이 신앙의 첫째 능력이다.’ 지원용(1997), 전게서, pp.303-304.

50) 「신약성서」, “에베소서”, 2:8.

51)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16.

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선언을 받고 그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되는 것을 의미한다.⁵²⁾

3) 만인사제직(萬人司祭職)

개개인 신자의 외부로부터 간섭 없는 특권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제나 교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며 속죄주(贖罪主)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점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으며, 사제나 교황의 특권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⁵³⁾ 성서는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인 제사장직을 가르친다. 그는 곧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⁵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52) 배한국(1993), 전계서, pp.33-34.

53) 루터는 1520년에 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논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왕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들을 서로 가르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직무이며 이 직무는 불신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형제와,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과, 동료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전(現前)에 담대해 나아가(히 10:19, 22)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제사장들의 외적이고 가견적(可見的)인 업무에서 행해지고 예시(豫示)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지원용(1997), 전계서, pp.312-313.

54)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6.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⁵⁵⁾ 라는 성구를 인용하고 있다.

모든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직이란 그들의 구세주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중개할 인간적인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영적(靈的)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서 죄의 용서와 새 생명과 구원의 모든 영적 은사(恩賜)를 자유로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제사장 없이는 용서도 없다.”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인간적인 제사장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⁵⁶⁾



2. 중세기 이후 종교개혁기의 교육기관

1) 문답학교(Catechumental School)

세례지원자 학교라고도 한다. 이 학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에게 기독교 교리의 문답을 통하여 종교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 기독교도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업기간은 처음에는 단기간이었으나 나중에는 2~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초등교육기관이 없던 시기에 유일한 초등교육기관이었다.⁵⁷⁾

55)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9.

56) 배한국(1993), 전계서, pp.34-35.

57) 최정웅(1985), 「교육사상사」, 학우사, p.92.

2) 고급문답학교(Catechetical School)

문답교사 학교라고도 한다. 이 학교는 교회의 지도자와 문답학교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그래서 교육정도가 상당히 높았다. 내용은 신학, 철학, 자연과학, 수사학, 천문학, 수학, 역사학, 그리고 그리스어와 라틴어였다.⁵⁸⁾

3) 본산학교(Cathedral School)

사원학교, 사목좌성당학교라고도 불리웠다. 이 학교는 교회의 성직을 맡아볼 교구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직자의 자제를 비롯, 그 계승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은 7자유과⁵⁹⁾를 중히 여겼다. 처음에는 승려 지원자만 수용하였으나 나중에는 일반 자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4) 수도원학교(Monastic School)

중세기 대부분을 통해서 교육의 중심을 이룬 유일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승(monk), 승원(monastery)은 ‘alone’ 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monos’ 에서 유래된 말이다. 기독교도 중에서 무인의 곳으로 달아나 은자(隱者)로서 독거(獨居)하는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 명상생활에 헌신하는 초기 동방종교의 금욕주의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4세기부터 시작되어 7세기 후 이 단체들은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며, 9세기경에는 그 숫자가 9천 여 개에 달하는 등 16세기까지 번창하였다. 교황의 보호 아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권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 속한 수

58) 최정웅(1985), 상계서, p.92.

59) 3학과(Trivium) 즉 문법, 수사학, 변증법(다른 책에서는 논리학), 그리고 4학과(Quadrivium) 즉 산술, 기하, 천문, 음악. 김봉수(1984), “서양교육사”, 「현대교육학 총서 6권, 학문사, p.118.

도승들은 승려계급으로서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서 높은 대우를 받았다.⁶⁰⁾

교육목적은 개인 영혼의 구제였다. 마음과 영혼의 더 높은 생활을 위하여 모든 육체적 욕망과 애정을 억제하는 금욕주의였다. 육체적 고행⁶¹⁾을 하고, 현세를 부인⁶²⁾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금욕주의는 인간의 지식과 학문 발전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었다. 자연의 기쁨이 없는 곳에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었다. 루터도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교육형태는 수공적 훈련과 문학적 훈련이 있었다. 매일 건강유지를 위하여 망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 7시간의 수공노동을 하였으며, 교회의 성전 문학을 읽었다. 그들은 벌목과 피혁, 금속 등의 가공에 능숙했고, 농경과 원예에서 숙련된 농부였다. 독서의 필요성은 수도원 도서관의 사본 수집을 장려하게 되어 다른 수도원과 사본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긍정적으로 보면 고대교회 사본의 보존과 복사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⁶³⁾

교육내용은 7자유과가 고정된 교과 과목이었고 전문과정에는 철학과

60) 최정웅(1985), 전계서, pp.93-94.

61) 승려의 덕성은 가끔 체고(體苦)의 방법을 안출 해내는 창의에 의해서 평가되었는데, 즉 불충분하고 부적당한 음식물에 만족하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 불충분하고 조잡한 의복을 입는 것, 부자연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육체적 고뇌의 모든 형태를 인내하는 것 등이다. 김봉수(1984), 전계서, p.115.

62) 사회적 모든 주장과 인간제도를 부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Benedict의 규칙은 순결, 청빈, 복종의 세 가지 서약을 승려에게 부과하였다. 순결은 모든 인간관계와 가정제도에서 성장하는 애정에 대한 단념을 포함하고, 청빈은 모든 경제관계와 생활의 물질적 이익을 거절하는 것이고, 복종의 관념은 모든 권력, 계급, 차별에 대한 부정을 뜻하는 것이었다. 김봉수(1984), 상계서, pp.115-116.

63) 지원용(1991), 전계서, pp.54-55.

신학도 배웠는데, 교육방법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흥미와는 거리가 먼 질문 대답식이었으며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 중심이었다.

5) 기사교육(Knightly Education)

중세에는 사회적으로 봉건제도가 성립되고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중세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사계급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독특한 도덕과 생활규범인 기사도가 확립되었다. 기사도(Chivalry)란 말은 프랑스어로 말(Cheval)에서 유래하고 소년, 종자를 뜻하는데 무기를 가진 청년을 말한다. 사라센제국에 대항하여 십자군이 발족되었을 때 기사들이 처음 모습을 나타내었고 찰스(Charles)대제 사후 각지의 영주나 국왕은 자기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영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병을 기르고 용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영주의 통솔하에 치안을 담당하는 전투적 병사들로 형성된 기사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기사교육의 목적은 야만적인 기사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정신을 습득시키는데 있었다. 중세에는 교회 밖을 나오면 식자(識者)가 드물었기 때문에 무사들은 대부분 문맹이고 무지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무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부인에 대하여는 의협, 그리고 만사에 있어서 정직할 것을 가르쳤다. 그것은 사랑과 전쟁과 종교의 교육이었다.⁶⁴⁾

64) 기사도의 십계명 : 1. 기도하는 것, 2. 죄악을 피하는 것, 3. 교회를 지키는 것, 4. 여자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 5. 여행을 하는 것, 6. 충성스런 전쟁을 수행하는 것, 7. 귀부인이나 숙녀를 위해 싸우는 것, 8. 정의를 지키는 것, 9. 신을 사랑하는 것, 10.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최정웅(1985), 전계서, p.96.

기사교육은 일정한 장소의 학교가 없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조직과 방법은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었다. 제1단계는 출생 후 7세까지 신체적, 도덕적, 종교적 훈련이었다. 제2단계는 7세부터 14세까지로 시동(侍童)단계(Page)라고 한다. 영주의 저택이나 궁정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귀부인 밑에서 시중을 들면서 예의범절, 3R's(교육⁶⁵)의 초보, 라틴어, 모국어, 악기 연주법을 배우고 신체적으로 달리기, 씨름, 말타기, 수영, 권투 등을 배운다. 제3단계는 14세부터 21세까지 기사의 종자(從者, Squire)로서 실제적인 기사의 경험을 쌓는다. 교육내용인 칠예(七藝)는 말타기, 수영, 활쏘기, 검술, 수렵, 장기, 시·음악·무용을 배운다. 그리고 21세가 되면 기사 입문식 또는 기사 작위식을 거행했다.⁶⁶



6) 시민교육기관과 도제(徒弟, Apprentice)교육제도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사라센문화의 영향을 받아 동서간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도시가 형성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승려와 귀족에 맞서는 제3계급이 생겨났는데 바로 시민계층이었다. 그들은 거주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왕이나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 이른바 자유도시를 성립시켰다. 이들은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그에 알맞은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교육, 생산교육, 직업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였다. 대체로 시민계급을 위한 교육기관은 상류계급의 학교와 하류계급의 학교로 나눌 수 있다. 상류계급을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영국의 문법학교(Grammar School), 공립학교(Public School), 그리고 독일의 라틴어 학교(Latin Schule)를 들 수 있는데 오늘날의 중등학교의

65)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산수(Arithmetic). 지원용(1991), 전계서, p50.

66) 최정웅(1985), 상계서, pp.95-97.

기초가 되었다.⁶⁷⁾ 그리고 하류계급의 시민교육기관으로는 영국의 조합학교(Guild School), 독일의 독일어 학교(Deutsche Schule)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민교육과는 별도로 도시의 상공업 자제들을 위한 비형식적인 교육이 발달하였는데 이를 도제교육제도(徒弟教育制度, Apprenticeship System)라고 한다. 이는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도제(徒弟, Apprentice, Lehrling): 부모가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분야의 장인(匠人, master)에게 데리고 가서 도제(徒弟)로 맡긴다. 그러면 도제는 계약된 일정기간 동안 동거하며 봉사하는데 대개 7년 정도였다.

직인(職人, Journeyman, Geselle): 도제시대가 지나면 직공으로 승격한다. 이 때는 주인에게 구속되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더 높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여러 주인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장인(匠人, Master, Meister): 조합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서 Master가 된다. 자기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도제와 직공을 데리고 일한다.

7)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Common Life)

네덜란드의 대벤테르(Deventer)시 출신의 평신도였던 흐로테(Gerard Groote)의 회심(悔心)과 경건한 생활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그의 제자인 라드윈(Radewijns) 등에 의해 공동생활 형제단이 설립되고 헤기우스(Alexander Hegius), 간스포트, 아그리콜라 등의 교사, 학자, 휴머니스트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중세적 정신이 근대적 정신으로 변화하는데 공헌을 했던

67) 영국의 공립학교(Public School)은 오늘날 영국의 6대 중등교육기관인 Winchester, Iton, Westminster, Harrow, Rugby, Charterhouse의 기초가 되었다. 최정웅(1985), 상계서, pp.98-99.

운동이다. 이 형제단의 목표는 순수한 종교적 삶을 통해 기존체계 안에서 교회의 개혁과 성경, 고전을 복사함으로써 원시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헌신과 학문적 정신을 추구했던 운동이다. 또한 실천적 신비주의 성격을 갖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모방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여기에서의 생활은 새벽 3~4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시간까지 자유로운 기도와 독서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각기 자기가 맡은 일에 착수하였다. 일과는 청소, 병자 방문, 전도, 소년들의 생활지도 등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고전이나 성경을 필사하거나 복사하는 것이었다. 비엘, 에라스무스, 아캄피스, 그리고 루터 등이 여기서 함께 생활했다.⁶⁸⁾ 이 운동은 자유로운 헌신과 봉사의 단체였으나 당시 상업중심지로 서서히 성장하는 신흥도시의 출현은 독특한 민주주의적 사회생활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구체화하기에 적합한 상황이어서 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공동생활 형제단은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16세기경에는 북부유럽에 수백 개의 학교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⁶⁹⁾

8) 대학교육

유럽은 도시사회가 발달하고 동서문화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자연히 새로운 도시문화가 형성되고 직업도 전문화되어 지금까지의 수도원교육이나 기독교 교육만으로는 변천되어 가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더 높은 학문 연구의 필요성은 학자들과 학생들의 조합으로 대학을 탄생하게 만들었다.⁷⁰⁾ 가장 처음 생긴 대학은 1060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68) 원용서(1998), 전게서, p.19.

69) 강희천 외(1994), 「기독교교육사」, 교육목회, p.150.

70) University 의 명칭은 단체, 또는 조합을 뜻하는 공동생활체 조직으로서

살레르노(Salerno) 대학으로 의학이 유명했고, 두 번째는 법학으로 유명한 북부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 대학으로 1088년에 설립되어 1158년 프리드리히1세로부터 대학의 특권을 받았다. 다음은 1109년에 설립되어 1180년 루이 7세에게 공식 인가를 얻은 빠리(Paris) 대학으로 신학과 철학이 유명하고, 이어서 영국에서 옥스포드(Oxford) 대학이 교회와 관계없이 1167년 말 또는 1168년 초에 개교하였고, 옥스포드대학에 불만을 품은 학생과 학자들의 분산결과로 1209년에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이 생겨났다. 독일에서는 비교적 늦어서 1348년에 설립된 프라하(Prag) 대학이 맨 처음이었다.⁷¹⁾

Universitas에서 나온 말이고, College라는 명칭은 조합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기식하는 공동합숙소 Collegium에서 유래한 말이다. 최정웅(1985), 전 계서, p.100.

71) 독일의 초기 대학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rag 대학, 1348년에 설립.

Wien 대학, 1365년에 설립되고 1383년에 재조직됨.

Heidelberg 대학, 1386년에 설립.

Koeln 대학, 1388년에 설립 후 1795년에 폐교되었으나, 1919년에 다시 개교함.

Erfurt 대학, 1392년에 설립되었으나 1813년에 폐교됨.

Leipzig 대학, 1409년에 설립.

Rostock 대학, 1419년에 설립.

Greifswald 대학, 1456년에 설립.

Freiburg 대학, 1457년에 설립.

Ingolstadt 대학, 1472년에 설립되어 1800년에 폐교

Trier 대학, 1473년에 설립.

Mayence 대학, 1477년에 설립되었다가 1797년에 폐교 후, 1946년에 다시 개교됨.

Tuebingen 대학, 1477년에 설립

Wittenberg 대학, 1502년에 설립되었으나 1817년에 폐교됨.

Frankfurt(an-der-Oder)대학, 1506년에 설립되었으나 1811년에 폐교됨.

Marburg 대학, 1544년에 설립.

Jena 대학, 1558년에 설립.

대학의 조직은 신학, 법학, 의학부가 있었고 학부의 예비과정으로서 문과(혹은 인문학부)가 있었는데, 이 문과에서는 7자유과와 라틴어를 교양필수로 하여 기초를 쌓고 신학, 법학, 의학부를 선택하게 된다. 특히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하였고, 자연철학으로서는 물리학이, 도덕철학으로서는 윤리학과 정치학이, 정신철학으로서는 형이상학이 중시되었다. 교육은 대체로 4~7,8년 동안 이루어졌고 교육방법은 강의를 통한 필기와 토론이었다. 그 중에서도 필기가 중심을 이루었고, 토론은 형식논리학의 삼단논법을 따라서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반론을 전개시켜 마지막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암기와 해설의 방법도 있었다.

중세 대학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회나 국가에 속하지 않은 독립정신과 자유정신이라 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의 단체만 존재하고 있었다.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여 학문의 자유를 사수하고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투쟁도 벌였다.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어떠한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명예였다. 옥스퍼드대학의 위클리프의 추방과 프라하대학의 총장인 후스의 화형사건이 그 좋은 예이다. 그래서 대학을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Imperium in imperio)’ 라고도 불렀다.

또한 대학에는 많은 장학금 제도와 기숙사가 있었고 빈곤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도 마련되어 있었으며, 규칙은 엄하였다. 그런 환경 속에서 대학교수는 사회적 존경과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⁷²⁾

그러나 교육내용을 보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낡은

R. R. Caemmerer(1944), "The Education of Representative German Princes in Sixteenth Century," Ph. D.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p.130 ; 지원용(1991), 전계서, p.55에서 재인용.
72) 최정웅(1985), 전계서, pp.100-102.

지식을 체계화하고 분여(分與)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대학의 발전을 좌우한 바 있는 학교 내의 논쟁들은 그 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것이지 그 범위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6세기 독일의 대학들은 영주들의 가정교사를 양성하는 일과 영주들 자신의 교육방법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영주의 보호와 지도에 순응하여 사실상 교육의 방침과 방법도 영주 자신의 권한 밑에서 그의 목표를 대변해 주는 정도였다.⁷³⁾

IV. 루터의 교육사상



1. 교육목적

루터의 교육에 대한 이론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독일에 대한 그의 충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념은 실제로 이중적인 것이다. 하나는 온 인류에게 적용되고 장소의 분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의 부름”을 위한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개개인의 독특한 재능과 또한 개개 사회와 국가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특이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는 “지상의 사명”을 위한 교육이다.⁷⁴⁾ 즉 하나는 정신적인 종교생활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시민교육의 문제이다.

루터가 생각한 교육은 종교적인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내세의 구원을

73) 지원용(1991), 전계서, p.56.

74) 지원용(1991), 상계서, pp.193-194.

연기 위한 개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⁷⁵⁾ 루터가 생각한 참지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은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총으로 구원하려고 열망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⁷⁶⁾ 즉 루터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율있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지식의 증진⁷⁷⁾과 인격의 도야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루터의 교육은 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루터는 교육을 사회와 국가를 위한 부와 힘, 그리고 번영의 근본요인으로 보고 사회와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교육적 사명을 높이 평가하였다. 실로 “사회란 모든 시민들의 재능을 최대한 실현시켰을 때 더 큰 안정을 얻게 되고, 법에 의해 통치되며, 더욱 신(神)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⁷⁸⁾ 라고 하는 점에서 루터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교육의 기여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⁷⁹⁾

75) F. P. Graves(1970), 「A Student's History of Education」 Green Wood Press, p137. ;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교육사상가평전」, 교학연구사, p.104에서 재인용

76) 대한기독교서회(1963), 「탁상담화」, p.55.

7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구약성서」, “잠언”, 9:10.

78) Robert Vlich(1947), 「Three Thousand Years of Educational Wisdom」, Havard University Press, p.224. ;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전게서, p.105에서 재인용

79)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상게서, pp.104-105

Harrison은 루터의 교육목적을 “첫째, 성서의 개인적 해석에 의한 종교적 도덕주의, 둘째, 내세와 현세를 위한 준비, 셋째, 국가와 사회에 정직하고 성실한 봉사, 넷째, 가정,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 로 보았다. 김봉수(1968), 「교육철

2. 교육내용

1) 성서교육

루터의 교육관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동기나 목적보다도 종교교육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앞서 종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보았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신의 말씀인 성서는 루터가 제의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첫째가는 교재이며 교육의 방편이다. 성서는 유일한 진리이고 인간의 언어로 된 신의 계시이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다른 교재보다 우선한다. 루터는 전적으로 교육을 신의 말씀 밑에 두고 율법과 복음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교육의 성취 여부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루터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는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고 서슴없이 경고하였다. 루터에 있어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배우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성서는 모든 교재의 으뜸이 된다. 신학적인 학문이건, 또는 실제적, 자연적, 정신적인 학문이건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⁸⁰⁾고 보았다. 그리하여 루터는 성서를 독일 국민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농민전쟁 이후에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 두 가지 교리문답서를 만들었다. 소교리문답서는 평범한 언어로 되어 있어 아이들과 평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으로 성서의 전체적인 개요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기독교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대교리문답서

학사」, 학문사, p.247.

80) 지원용(1991), 전계서, pp.325~326.

는 좀 더 깊은 정도의 책으로 소교리문답서를 끝낸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였다.⁸¹⁾

2) 언어교육

언어교육에 관한 루터의 강조는 그가 1524년에 기록한 논문⁸²⁾에서 볼 수 있다. 언어는 하나님의 은사(恩賜)이며 언어를 통해서 인류에게 복음을

81) 지원용(1991), 상계서, pp.226-227.

82) “기독교학교를 후원하고 유지할 것을 전 독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한 논문”

VI. 언어의 유용성과 필요성

1. 언어는 하나님의 은사(恩賜)이다.
2. 언어들(라틴어, 희랍어 및 히브리어)과 다른 교양과목의 습득과 활용
 - a. 성서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이다.
 - b. 시민정부에 대한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3. 전도기관
 - a. 복음은 언어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해진다.
 - b. 언어는 복음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 c. 성령은 언어라는 방편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 d. 언어는 소중히 보존되어야 한다.
 - e. 언어의 연구는 적(敵)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의 세력을 파괴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언어(희랍어와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들은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5. 언어들은 복음의 보존 역할을 한다.
6.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7. 언어는 암흑을 향해 비치는 햇빛과 같다.
8.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전체를 보존할 수 있다.
9. 언어는 크리스찬에게 힘과 부와 생명을 준다.

지원용(1991), 상계서, pp.278-280.

주셨고 그의 오묘한 진리를 알아듣게 하셨다. 언어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고
방이며, 인간이 머물러 있는 무지의 암흑을 향해 비치는 빛과 힘, 그리고 생
명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복음을 가르칠 수도, 바르고 거룩하
게 지킬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를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을 더 분명히, 정확히, 더 쉽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현대 독일어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언어교육방법에서도
다양하고 탁월한 제안을 하고 있다. 문법을 강조하였지만, 실제적인 연습과
사용을 통해서 더 잘 습득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나 책에서보다 가정,
거리, 교회, 학교에서 회화를 통하여 보다 용이하고 유쾌하게 배울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3) 음악교육



루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음악을 강조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음
악이 인간적인 정서의 안내자와 지배자로 유일하다고 보았다. ‘음악은 하나
님의 뛰어난 은사이며, 신학 다음 가는 귀한 것이다. 나는 아무리 큰 보수를
받는다 하여도 음악에 대한 나의 약간의 지식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고 젊은이들은 이 예술을 배워야 한다. 왜냐 하면 음악은 훌륭하고 숙련된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⁸³⁾라고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신학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고 보았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줄 뿐 만 아니라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는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고, 예배와 설교를 힘있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구약성서에서 음악과 예배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
며, 둘이 같이 병행하는데 이것을 시편과 구약문학 가운데 볼 수 있다고 하

83) 대한기독교서회,(1963), 전계서, p.244.

였다. 그리고 영적인 노래와 음악과 악기들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깊은 의의(意義)를 지닌 음악을 충분히 감상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단체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한 음악연극 같은 것을 공연하는 것은 아이들의 단체훈련을 위하여 큰 의의를 지닌 교육의 한 방편이라고 하였다. 84)

루터는 많은 음악적 재능이 있어 여러 찬송가를 작사했으며⁸⁵⁾ 교회예배에 찬송을 도입하였다.

4) 역사교육

교육과정에서 역사과목을 강조한 것도 그 당시로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 볼 수 있다. 루터는 그가 젊었을 때 더 많은 역사서를 읽을 수 없었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인 동시에 역사에 내재하는 존재로서 이해했다. 역사의 이해와 지식으로부터 인생의 외적 삶에 있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얻으며, 다른 사람에게 충고와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역사 연구야말로 당시 유행하던 교권제도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보았다.⁸⁶⁾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84) 지원용(1991), 전계서, pp.329-332.

85) 「해설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86) 최태성(1997), “루터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44.

문예부흥에 의한 인문주의자들의 교회 권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고전연구의 결과중의 하나로 롤렌조 발라(Lorenzo Valla)가 시칠리아왕의 비서로 있으면서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던 콘스탄틴의 기증(Donation of Constantine)이라는 문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하여 교황청은 소유하고 있던 많은 땅들을 빼앗기게 되었다. 서문당(1975), 「컬러판 세계백과 대사전(제8권)」, p.504.

그 위치가 높다고 하였다.⁸⁷⁾

종교개혁은 역사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랑케(Leopold Von Ranke)나 바우어(F. Baur)같은 사람들의 역사 연구는 종교개혁 정신을 물려 받은 하나의 확실한 예라 할 수 있다. 성서 그 자체를 해석한다는 개혁자의 원리는 성서 해석뿐 만 아니라 역사해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역사를 쓰되 있었던 그대로 취급한다는 랑케의 역사연구 방법은 이런 영향을 잘 보여준다.⁸⁸⁾ 그리고 루터는 도서관에서 연대기와 역사서들을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하며 유능한 역사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⁸⁹⁾

5) 직업교육

루터는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의 직업교육관은 직업에 대한 소명(召命)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는 군주, 영주, 상인, 수공업자, 농민이란 갖가지 직분과 직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자기 직분을 잘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⁰⁾ 그러므로 남녀 청소년 모두가 각자에 필요한 기술을 한가지씩 배우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학교 교과목 가운데 직업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직업교육은 이웃을 향한 서로의 봉사라는 직업의 개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7) 배한국(1993), 전계서, p.116.

88) 배한국(1993), 상계서, p.52.

89) F. V. N Painter(1928), 「Luther on Education」, pp.86-87.; 김규성(1990),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22에서 재인용

90) 농민전쟁이 일어나 뮌처와 농민들이 계급타파를 부르짖었을 때 루터는 소명의식에 따른 그의 직업관 때문에 제후의 편에 섰다. 삼성출판사(1982), 전계서, p.346.

3. 교육기관

1) 가정교육

교황권 밑에서 결혼이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고, 반면에 독신이나 미혼은 거룩한 은총을 받은 신성한 소명으로 찬양되었다. 그러나 루터는 두 성(性)의 존재에서 결혼의 자연적인 기초를 보았고, 그것은 신성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황제와 성인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까지 탄생시켰던 성스러운 결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런 보물이다. 결혼의 상태를 싫어하고 그것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악마다.” 91) 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는 가정이란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한 복리의 원천으로 바른 가정교육과 생활은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고 사회복지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다. 교회나 학교가 교육을 보충할 수는 있으나 가정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가정교육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요⁹²⁾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명이며,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자리로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흉내낼 수도 없는 자리라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모에 비하면 이차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로 여기고 존중하며 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녀의 가정교육을 위해서 시기상조란 말은 있을 수 없

91) F. V. N. Painter(1928), 「Luther on Education」, pp.142-143.;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전계서, pp.109-110에서 재인용

92) 「구약성서」, “신명기”, 6:4-9.

으며 어린아이가 젖을 빨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또한 어머니가 유아를 위하여 애정에 충만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그때부터 교육은 시작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사랑’은 자녀교육의 힘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은 어린아이들을 육성하는데 가장 좋고 건강에 적절한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애정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어머니의 애정 자체이다.” 93) 라고 했다.

루터는 부모에 대한 순종심에 근거하여 적절한 징계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덕과 선행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복종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부모에 대한 복종이 없는 곳에 참된 도덕이나 튼튼한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가정은 모든 다른 정부나 기관이 근거하고 있는 하나의 특별한 정부로서 가정은 국가의 평화 및 분쟁의 근원이며 모든 선하고 악한 것이 가정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또한 아이들은 ‘엄격한 친절’과 ‘친절한 엄격성’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훈계 가운데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사과를 회초리 곁에 놓고 벌해야 한다.” 94)는 말은 그의 이런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훈계가 어떤 목적을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면서, 훈계의 직접적인 목적은 바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더 높은 뜻과 일치하는 자아훈육(self-discipline)을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벌의 무서움을 체험해야 할 것이며, 95) 잘못을 뉘우친 아이는 부모가 주는 사랑의 진실함을 느끼게 되어야

93) John George Walch(1740-1753), 「Walch Ausgabe. vol. 22」, p.262.; 지원용 (1991), 전계서, p.206에서 재인용

94) John George Walch(1740-1753), 「Walch Ausgabe. vol. 22」, p.1785. ; 지원용(1991), 상계서, p.210에서 재인용

한다고 했다. 아이들은 공포심이나 강제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사랑에 의해서 한층 더 성실한 행동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체벌 제일주의로 자녀들을 증오로 대하거나 교사가 지나치게 가혹한 벌로써 학생들에게 적의를 갖도록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루터는 자녀들이 고립된 세계에 버려지게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다른 동료들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 통하여 사회적인 미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으며 인간 상호간의 예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⁹⁶⁾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은 활동력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사귀며 그들이 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 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 보았다.

그는 아이들 교육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거나, 부모의 노력과 수고를 자녀들이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루터는 말하고 있다. 곧 “비록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힘써야 한다.”⁹⁷⁾고 했다.

루터에 의하면 교육의 성공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사이다. 부모와 교사

95) A. Hope(1880-1910), 「St. Louis Ausgabe. vol. 22」, p.1194.; 지원용(1991), 상계서, p.210에서 재인용

96) John George Walch(1740-1753), 「Walch Ausgabe. vol. 5」, pp.2348-2349.; 지원용(1991), 상계서, p.212에서 재인용

97) John George Walch(1740-1753), 「Walch Ausgabe. vol. 13」, p.1662.; 지원용(1991), 상계서, p.213에서 재인용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육적인 노력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루터가 가정을 기본적인 교육기관으로 본 것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교육학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라 하겠다.

2) 학교교육

루터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고 그 교육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근본적이라 할 지라도 가정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전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개 부모들은 교육문제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이 희박하고 교재의 내용을 다 습득하지 못하며 교육방법의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할 만한 시간이 부모에게는 없으며, 각 가정마다 교육적인 기구를 다 갖춘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⁹⁸⁾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루터는 그 밖의 다른 예술, 역사를 가르치는데 자격을 갖춘 교사가 그것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루터의 학교이념은 여러 가지 점에서 루터 이전의 학교 이해와는 구별

98) 루터는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고 유지할 것을 전 독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한 논문(1524)”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부모에 대하여.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무시하게 된 원인들

- a.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과 그들을 위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다.
- b.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킬 만한 자격을 구비치 못하였다.
- c.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
- d. 특히 빈한한 사람들에 있어서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나친 부담이었다. 많은 수재 아동들의 교육이 궁핍 때문에 등한히 여김을 받았다.

지원용(1991), 상계서, p.274.

되는 특징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학교의 주체를 교회에서 국가로 옮겼다는 것이다. 루터는 기존의 학교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 교회의 재정과 인력으로 운영되었던 것에서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재정문제였다. 루터는 종교개혁과 더불어 기존의 교회, 즉 로마 교회와는 결별을 하였다. 학교를 관장하던 기관과 결별을 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그는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 상황으로는 귀족과 시의원만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⁹⁹⁾ 둘째 이유로는 학교 존립의 근거에 대한 이해가 이미 근본적으로 이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루터는 학교가 ‘세상의 나라’와 ‘영(靈)의 나라’ 모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¹⁰⁰⁾.

기존의 학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성직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교여서 부모들의 생각에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만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

99) 루터는 “국가(state)”를 매우 광범위하게 생각했으며, 종교를 국가 속에 두려고 했다. “루터에 있어서 국가는 결코 정리(廷吏)로서의 직무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메마르고 돌투성이인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라게 하시는 정원이다.” Heinrich Bornkamm (1953), 「Luthers Geistige Welt」, p.318; 지원용(1991), 상계서, p.216에서 재인용.

루터와 교회는 연방제후에 의해 지배되고 통할되어 덜 민주적이었기 때문에 덴마크와 중북부 독일, 그리고 그 위 북유럽으로 국한되었고, 칼빈과 교회는 생활은 엄격하였으나 교회제도가 장로제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면이 많아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세계 각지로 쉽게 퍼져나간 요인이 된다. 삼성출판사(1982), 전계서, p.372.

100) 루터는 “기독교학교를 후원하고 유지할 것을 전 독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한 논문(1524)”에서 교육의 발전을 위한 루터의 탄원 목적은 육신과 영혼을 위하여 행복스런 기독교 사회질서에 도달하려는 것이었다. 지원용(1991), 전계서, p. 227.

었다. 그는 이러한 성직화 개념에 반기를 들었다. ‘영의 나라’ 를 위해 신학자와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세상의 나라’ 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훈련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가 필요한 인재, 법률가, 공무원, 의사 등을 배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면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그 주체가 옮겨지면서 대상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루터는 생각했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사고는 오늘날 ‘공교육(公敎育)’ 개념에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루터가 학교와 교회를 국가의 보호 밑에 두도록 주장했다고 해서 결코 교육의 세속화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교육목적 그 자체는 국가의 번영과 국가를 지원하는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계급과 성별에 구별 없이 보편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낳게 한 것이다.¹⁰¹⁾

이러한 개념 아래 학교 조직은 평민자녀를 위한 무상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등교육기관인 라틴어 학교,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필요한 고위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으로 구분했다.

루터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멜랑히톤과 부겐하겐(J. Bugenhagen)이다. 멜랑히톤은 중등교육의 개혁에 힘을 쏟았는데 중세적인 구태를 완전히 벗지는 못하였다. 중등교과の内容은 대부분 인문주의적 교과목이었으며,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변증법, 수학, 수사학, 웅변술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루터는 역사, 수학, 자연과학, 음악, 체육 등을 중등학교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멜랑히톤은 색소니 학교령

101)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전계서, p.110.

(Saxony Plan)¹⁰²⁾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는데 이것은 근대 공립학교의 시초가 되었다.

비약적인 개혁을 가져온 것은 초등학교였다. 초등학교로는 모국어학교, 일요학교, 여자학교가 있었는데, 교육내용으로는 기도문, 시편, 찬미가, 라틴어, 산수, 도덕, 음악, 체육 등이 있었다.

루터는 초등교육을 매우 강조했다. 모든 도시와 농촌에 초등학교를 세워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 중에서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당한 학생을 찾아낼 수 있고 그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초등교육에는 부겐하겐이 활발히 움직였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 시절부터 루터의 오랜 친구로 주로 북부 독일에서 활동하며 루터의 정신을 교육제도로 나타내는데 전력했다. 독일 각 지역에 모국어 학교를 세우고 일반 서민들에게 보통교육을 보급시켜 서민층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이 발달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부겐하겐은 지금도 초등교육의 아버지라 불리운다.¹⁰³⁾

루터는 가르치는 직무의 위치를 높이 생각한다. 교사의 직책은 고상하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¹⁰⁴⁾ 시장과 시의원, 제후와 영주

102) 색소니 학교령의 개혁 요점은, ①비생산적인 스콜라 철학을 없애고, ②라틴어로 서적본위에서 실천성을 최소한 가르칠 것, ③학생은 진도별로 편성할 것 등이다. 제1집단은 읽기 단계, 제2집단은 문법학습 단계, 제3집단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우수한 학생으로 구성되며, 아동기 때 시문(詩文)의 읽기·쓰기, 알파벳, 종교신조를 배운다. 본질적으로 종교, 찬송가, 합창, 라틴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불과하였으나, 국가와 자치도시간의 협력 위에 학교조직을 체계화한 점을 공적으로 볼 수 있다. 이원호(1994), 「교육사」, 배영사, p.127.

103) 최정웅(1985), 전계서, pp. 127-128.

104) 루터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에 관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없이는 지낼 수 있을지 모르나 학교와 교육자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는 교사들을 젊은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킬 중책을 걸머진 ‘하나님의 종(Servus Dei)’¹⁰⁵⁾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직책이고 훌륭한 직위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킨 교사의 공적은 너무 커서 돈으로 도저히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⁰⁶⁾

루터는 교사가 이렇듯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직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특별한 재능과 통찰력 및 자신의 충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다. 교사는 경건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터의 학교교육관에서 또 하나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종교교육이다. 교회교육이 존재하지만 학교에서도 기독교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핵심은 ‘성서’와 ‘교리문답’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교육은 교회를 위한 교육이나 세상을 위한 교육이나 모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의 봉사로 이어지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교육이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학교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 안에 정기적인 ‘종교 수업’을 제창한 것이다. 오늘날 독일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직업학교를 포함하는 모든 공교

“만일 내가 설교하는 일과 다른 의무들을 단념해야 한다면 나는 단연코 학교 교사의 직을 택하겠다. … 목사직 다음으로는 교사직이 가장 유용하고 위대하며, 좋은 것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다. 지원용(1991), 전계서, pp. 287-288.

105) J. Knaake, P Pietsch & K. Drescher(1883), 「Weimar Ausgabe Vol. 15」, p.34 ; 지원용(1991), 전계서, p.222에서 재인용

106) John George Walch(1740-1753), 「Walch Ausgabe Vol. 10」, p.526. ; 지원용(1991). 전계서, p.223에서 재인용

육제도 안에는 ‘종교 수업’이라는 과목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루터와 더불어 시작된 전통이다.¹⁰⁷⁾

3) 교회교육

루터는 교회가 교육에 대한 전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고 아동의 교육적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할 결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와 더불어 교회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존엄한 교육자가 됨과 동시에, 균형 잡히고 질서정연한 사회와 유능하고 계몽된 시민으로 구성된 국가를 이루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¹⁰⁸⁾

루터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보는데, 그 역할은 첫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 둘째 교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곧 사랑과 봉사를 완수하는 일, 셋째 교인들이 서로 진실된 형제애를 나누는 일, 넷째 교인들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일 등이다. 인간의 영적인 교육은 본질상 영적인 교회가 교육의 장(場)이므로, 교회가 교회의 교육적 임무인 영혼구원, 신앙적 봉사, 진실된 형제애, 사회에 대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교육하고 독려할 때 교육적 의의는 크다 하겠다.¹⁰⁹⁾

루터의 교회교육은 말씀의 바른 이해와 해석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는 「탁상담화」에서 “참된 교회는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언어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

107) 유진영(1997), “루터의 교육사상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pp.20-22.

108) 지원용(1991), 전계서, p.238.

109) 유진영(1997), 전계서, pp.22-23.

서 온다고 하여 종교개혁 자체가 설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루터는 교회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

첫째는 성서번역이다. 전체 성서의 번역은 1534년에 완성되었다. 그것은 활자를 통하여 독일 전역에 보급되었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교리문답의 발간이다. 1529년에 두 개의 교리문답이 완성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소교리문답서와 어른을 위한 대교리문답서 이다.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의 지식을 실용적으로 담고 있는 문답자료이다. .

셋째는 미사의 개선이다. 음악에 변화가 오고, 성경내용에 대한 비중이 커졌으며 교훈이 많아졌다.¹¹⁰⁾

4. 교수법



루터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중세의 교육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부분이 있어 보수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현재의 교육방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진보적인 모습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16세기의 사람으로서 루터는 교육적으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다. 교육방법에 대한 루터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입식 교육방법으로 암기와 암송을 강조하는 엄격한 훈육방법을 제시하였다. 루터는 본문의 어구와 그 가운데 쓰여진 표현방식 같은 것을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여 한마디라도 변경해서는 안되며 장(章)마다 각별히 순서에 따라 가르치고 반복시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¹¹¹⁾

110) 최태성(1997), 전계서, pp.55-57.

루터의 이러한 교육방법은 현대 교육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당시 16세기의 일반적인 교육방법이었다.

둘째, 흥미중심의 학습을 위해서는 즐겁고 온화한 교실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루터는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엄격한 훈련과 체벌을 배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제시하면서 체벌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루터는 채찍과 체벌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어린이에게 채찍 자국만 남겼지 아무 효과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배우는 것이 어린이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라고 하였다.¹¹²⁾ 그리고 그는 탁상담화에서 젊은이는 슬퍼해서는 안되며 명랑하고 즐거워하며 좋은 기분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¹¹³⁾

셋째, 아동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사용하는 교재는 개개 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며, 아동들의 학습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고, 수업의 종결을 잘 맺기 위하여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루터는 천성에 따른 아동중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린이는 뛰고, 뒹굴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바라는 천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학교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왜 그와 같은 공부를 제공하지 않는가?” ¹¹⁴⁾

넷째, 실례와 귀감은 어떤 언어나 권고보다도 큰 응변이라고 하였다. 그

111) 지원용(1964), 소교리문답해설, 컨콜디아사, pp. 315-316.

112) 정희정(1996),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52.

113)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전개서, p.108.

114) F. V. N Painter(1928), 「Luther on Education」, p.124. ; 정희정(1996), 전개서, pp.51-53에서 재인용

러므로 아이들과 있을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말하고 약속한 것은 모두 이행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들의 강한 감수성으로 부모들이 사용하는 교훈 및 양육의 방법은 아이들의 습성에 영향을 미쳐 마침내 생활의 일부가 되므로¹¹⁵⁾ 부모들은 처음부터 세심한 주의와 계획 밑에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루터는 강조하였다.

루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모범(Supreme Example)” 을 주시하였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친히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¹¹⁶⁾ 아이의 세계에 살지 않고는 아이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 원리를 그 자신의 가정생활에 실증하였다. 루터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즐기며 놀았는데, ‘거룩한 천진성’ 과 ‘종교적인 유머’ 가 그의 일상생활에서 인간적인 특징으로 잘 나타나 있다.

다섯째, 학습과 실습은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루터에 있어서 교육은 사적이거나 공적인 모든 직무와 의무들을 능숙하고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적응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었다. 따라서 루터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와 학습자의 생활 경험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¹¹⁷⁾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하루에 한 두 시간씩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일하며 어떤 특별한 직업을 배우도록 하되 그의 취미에 맞는 것을 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5) John George Walch(1740-1753), 「Walch Ausgabe. vol. 13」, p.2778.; 지원용(1991), 상계서, p.208에서 재인용

116) John George Walch(1740-1753), 「Walch Ausgabe. vol. 10」, p.52. ; 지원용(1991), 상계서, p.208에서 재인용

117) Ellwood P. Cubberley(1920), 「The History of Education」, p.312. ;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전계서, p.108에서 재인용

5. 정책과 지원

루터는 교육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제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그의 제안들은 동료조차도 거의 이해 할 수 없었을 만큼 그 시대로서는 너무나 진보적인 것이었다. 그의 교육적인 제안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변호하였다. 그리하여 여자들도 날마다 한 시간씩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운 다음 집에서 그들의 일에 열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¹¹⁸⁾ 이러한 “여학교(Maidschule)”의 시설은 훌륭한 가정주부를 위한 적절한 훈련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젊은 여자에게는 교육의 특전을 주어 교사의 지위까지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16세기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진보적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루터는 여성교육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개척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결론 지어도 좋을 듯하다.

둘째, 수재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하였다. 천부의 재능이 있거나, 뛰어나게 영리하거나, 혹은 특별히 유망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특전 및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고 루터는 보았다. 신동(神童)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에게는 배움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기회를 줌으로 그의 관심, 취미, 그리고 기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¹¹⁹⁾ 왜냐하면 이러한 천부의

118) 루터는 그의 “기독교학교를 후원하고 유지할 것을 전 독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한 논문(1524)”에서 여자들도 매일 한시간씩 학교에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일하라고 말하였다. 지원용(1991), 전계서, p.278.

119) 루터는 그의 “부모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에 관한 설교(1530)”에서 정부와 위정자들은 천부의 재능있는 유망한 아동들의 교육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장학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용(1991),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은 미래의 교사, 설교자, 정치인, 법률가, 학자 및 그 밖의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셋째, 조기교육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교육은 가능한 일찍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초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일 자체도 용이해진다고 하였다.¹²⁰⁾

넷째, 장학금제도를 언급하였다. 만일 어떤 유망한 자녀의 부모가 지나친 경제난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정부와 교회는 그들에게 적절한 장학금을 제공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국가를 위한 내일의 희망이며 빛으로서 그들 중에서 국가와 교회의 장래를 좌우할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군주와 영주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농민들도 자진하여 기쁘게 장학금제도를 돕고 희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학금제도는 금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루터는 보았다.

다섯째, 도서관의 가치를 언급했다. 도서관은 지식을 대대로 보존하여 주는 보고(寶庫)로서, 복음과 예술, 언어와 모든 분야의 지식이 책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책을 등한히 하는 손실은 대단하다고 얘기했다. 그의 도서에 관한 관심은 성서와 주석(註釋)서에 관한 것만 아니라 일반적인 참고서까지 미치고 있으며 양보다는 질을 강조했다.¹²¹⁾

상계서, p.288.

120) 루터는 그의 “부모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의무에 관한 설교(1530)”에서 어린아이는 가끔 자라는 도중에 꺾어지기도 하나 더 용이하게 굽혀지며 자라 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원용(1991), 상계서, p.288.

121) 지원용(1991), 상계서, pp.235-238.

6. 현대 교육에 미친 영향

루터는 종교개혁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비록 당대에는 그의 사상이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의 진보적인 변화와 자극을 가져다준 것만은 사실이다.

그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그의 교육이론이 차지한 교육사적 의의는 의무교육제도, 서민교육 기회의 확대, 공교육 제도의 중요성, 여자의 취학, 교육방법적인 공헌, 직업교육, 도서관의 설립, 가정교육, 조기교육, 수재교육의 강조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루터의 개혁정신은 일반 민중을 위한 새 교육의 필요성의 대두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²²⁾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교육이다. 계급이나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보편교육의 주장은 오늘날의 독일 프로테스탄트 국립학교제도를 확립하게 만들었다.¹²³⁾

둘째, 의무교육이다. 부모가 전부 가르칠 수 없으므로 학교에 보내고, 정부는 필요하다면 강제로 취학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위의 두 가지 제안은 공(公)교육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은 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셋째, 교육내용의 범위가 넓어졌다. 언어교육의 확대, 직업교육 등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민생활에 관계가 있는 과목을 교육에 포함했다.

넷째,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수재교육, 장학금제도,

122)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전계서, p.112.

123) 지원용(1991), 전계서, p.80.

도서관 설립 등의 실현을 위해 주장하고 노력했다.

다섯째, 교육자의 중요성과 자세이다. 성직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개개 학생에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루터가 언급하지 아니한 교육분야는 거의 없다.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루터의 교육사상은 유럽과 미국에 현대일반교육 및 학교교육의 시발점을 제시해 주었다. 비록 그에 의하여 일반교육의 완전한 체계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교육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는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뚜렷하며,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¹²⁴⁾



124) 지원용(1991). 상계서, pp.67-82.

V. 결론

종교개혁은 기독교 개혁 운동으로서 자아의 자각과 인간성 본연의 발견을 위한 운동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전통적 종교상의 제도와 형식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개인의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 주었으며, 루터의 구원론, 의인론(義認論), 만인사제직(萬人司祭職)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성서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의 대중보급이 가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루터의 교육사상은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교육관은 기독교교육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 영향은 종교를 벗어난 일반 교육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 그의 보편 교육, 의무교육의 공교육개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귀족들만이 아닌 우리 일반 대중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해야 할런지 모른다.

확실히 루터는 종교개혁이 첫째 목표였기 때문에 교육개혁가이기 보다는 종교개혁가로 불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종교개혁가이면서 교육개혁가로서 현대교육에 미친 그의 영향은 지대하다. 혹자들은 그가 농민전쟁 때 제후의 편에 섰던 그의 보수성에 회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교육을 정부에 맡겨버려 교육 자체를 약화시켰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쟁점은 그의 공헌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의 교육사상은 그의 신학사상보다 더 획기적인 요소가 많다. 종교개혁 당시 그의 개혁적인 신학사상은 이미 다른 학자들에 의해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이 다소 있었는데 반해, 그의 교육사상은 시대를 훨씬 앞선 개념이었다.

이상과 같이 루터가 현대교육에 미치고 있는 지대한 영향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의 교육사상이나 정책은 매우 적다. 이제 우리는 그의 교육사적 공헌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의 주장이 비록 400년이 훨씬 지난 것이지만 사상적인 업적은 불변하는 현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세계화를 주장하는 변화와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희천외(1994), 「기독교교육사」, 교육목회.
- 김봉수(1968), 「교육철학사」, 학문사.
- 김봉수(1984), “서양교육사,” 「현대교육학총서 6권」, 학문사.
- 김재만(1983), 「교육사조사」, 교육과학사.
- 김홍기(1996),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예루살렘.
- 배한국(1993), 「루터와 종교개혁」, 컨콜디아사.
- 이원호(1994), 「교육사」, 배영사.
- 정정숙(1983),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총신대학출판부.
- 지원용(1960), 「말틴 루터」, 기독교서회.
- 지원용(1964), 「소교리문답해설」, 컨콜디아사.
- 지원용(1991), 「루터의 사상」, 컨콜디아사.
- 지원용(1997),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컨콜디아사.
- 최정웅(1985), 「교육사상사」, 학우사.
-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1987), 「교육사상가평전」, 교학연구사.
- 홍치모(1991),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 A. Mervyn Davies(1986), 「칼빈주의사상과 자유사상(Foundation of American Freedom)」, 한국칼빈주의연구원(1993), 기독교문화사.
- Bernhard Lohse(1980), 「루터연구입문(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이형기 역(1994),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Crane Brinton외(1960), 「세계문화사(A History of Civilization) 中」, 민석홍 역(1982), 을유문화사.

- Donald J. Wilcox(1975), 「신과 자아를 찾아서(In Search of God and Self : Renaissance and Reformation Thought)」, 차하순 역 (1985),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Erik H. Erikson(1958), 「청년 루터(Young Man Luther)」, 최연석 역 (1997),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Robert Roswell Palmer·Joel G. Colton(1978), 「서양근대사 I (A History of the Modern World)」, 강준창외 역(1988), 삼지원.
- Robert Ulich(1945), 「교육사상사(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한기연 역(1957),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 Hanns Lilje(1976),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차일룡 역(1981), 탐구당.
- Wallace K. Ferguson(1948), 「르네상스사론(The Renaissance in Historical Thought : Five Centuries of Interpretation)」, 진원숙 역 (1991), 집문당.
- 조지 L 모스(1953), 「종교개혁(The Reformation)」, 이민호 역(1986), 탐구당.
- 김규성(1990),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심(1993),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상근(1995),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원필(1995), “루터의 가정교육론.”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박장영(1993), “루터와 켈빈의 교육관 그 실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찬문(1977), “에라스무스와 크리스찬 휴머니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찬문(1995),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원용서(1998), “루터(Luther)의 인간 이해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유진영(1997), “루터의 교육사상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정희정(1996), “마틴 루터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태성(1997) “루터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구약성서(1990)」, 아가페출판사.
- 「신약성서(1990)」, 아가페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1963), 「탁상담화」.
- 삼성출판사(1982), “아시아의 왕조·르네상스시대,” 「대세계의 역사VI권」.
- 서문당(1975), 「컬러판 세계백과 대사전(제8권, 12권, 제15권)」.
- 「해설찬송가(1995),」 성서교재간행사 .

<abstract>

Luther's Educational Ideology in the Religious Reform Process

Hyeon, Ik-bu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Chan-moon

The significance of historical studies lies in accurate comprehension of the discipline through criticism and reflection, looking back upon the past, and in building a better future.

Religious reform was a turning point in the occidental history. This study has its purpose in (1) examining the religious reform process by Luther, who was actively engaged in the forefront of the movement at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and chaos; (2) collecting and making analysis of educational ideologies manifested in the process; and (3) turning it into something helpful on the scene of education today. Martin Luther, a religious reformist, had rather progressive educational ideas at the time and tried to put the ideas into practice. However, his efforts and educational ideas did not come to light. This aspect of not becoming known was considered to be something desired and was brought forward as an issue.

Thereupon, first, Luther's growing up process was looked at, the educ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that influenced him were investigated, and the process of his religious reform was examined. The reason is that the aspect and behavioral scope of the growth period have a grave influence upon shaping/forming one's ideology, and that religious reforms have been the motive for an educational reform. Second, his theological ideas, the basis of Luther's educational ideology, were analyzed and the educational circumstances of the period were touched upon. Since the pursuit of unrestrained religious

freedom was the final target for Luther, his theological ideology was the important idea for him and was the most profound foundation in establishing his education ideology. The general educational circumstances of the time was necessary in order to formulate the entire design of this study and to make comparisons with Luther's educational ideas. Third, the educational ideology of Luther was investigated in a concrete manner. His educational purpose, content and various assertions for ameliorating environment, as well as influence on modern education were examined in detail. This study deals with the aspect that his educational conjecture was emphasized as universal and compulsory for the benefit of all people.

It is akin to the idea that his theological ideology led all human beings to be able to encounter the Divinity, getting away from the authority of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times when only an individual who aspires to become a priest could receive religious edification, his asserted notion of public education, in which the general public should receive both religious education together and occupational training with the expense of government, would be his distinctive feat. In addition, this study contains many elements such as insistence of the scholarship system, education for gifted individuals and building libraries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t also includes his attitude toward the education that he regarded the standing of an educator as important a position as that of a clergymen.

His insight into education was clearly ahead of the times. Although he could not systematically complete such educational ideas, His would find that they have much influence upon educational systems of each nation in the world today. It became the basis for modern education. Luther is undoubtedly a religious reformist. His goal was a religious reformation in all respects. His educational ideology could be regarded as an outgrowth of the religious reform. Nevertheless, his contribution to educational history should not be overlooked for such a rationale. Consequently, this study provides an entire outline: (1) the opportunity to reorganize the concept of education in the process of recently chaotic educational reform, looking into the Luther's educational ideology, and (2) re-evaluate the influences Luther has made on the history of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